

인지와 낙관적 편견이 여대생의 산부인과 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추예린¹ · 박지연¹ · 안희송¹ · 배경의²

동서대학교 간호학과 재학생¹, 동서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²

Influence of Cognition and Optimistic Bias on the Intention to Visiting Obstetrics and Gynecology of Women College Students

Chu, Ye-Rin¹ · Park, Ji-Yeon¹ · An, Hee-Song¹ · Bae, Kyung-Eui²

¹Under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Nursing, Dongseo University, Busan
²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Dongseo University, Busan, Korea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intention of visiting obstetrics and gynecology of female college students by considering their perception and optimistic bias. **Methods:** The study included a total of 135 female college students under the age of 25. The data collection period is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conducted online from April 8, 2019 to April 16, 2019.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correlation of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 20.0. **Results:** The degree of intention of behavior for visits to obstetrics and gynecology was 3.10 ± 1.06 points on average. Intention of behavior for visits to obstetrics and gynecology had significant variance depending on sexual experience ($t=3.09, p<.001$). The intention of behavior for visits to obstetrics and gynecology had positive correlations with the cognition of visits to obstetrics and gynecology ($r=.422, p<.001$), the optimism bias ($r=.419, p<.001$). Influence factors emerged the optimism bias, cognition and sexual experience with explanatory power of 30.4%.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paper can be used to prepare the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educational programs to promote preventive gynecological visits of female college students. Through this, the preventive screening rate, the quality of reproductive health in women's lives.

Key Words: Intention to visit obstetrics and gynecology; Cognition; Optimistic bias; Women; College students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성인 미혼여성 중 53.2%가 생식 건강에 이상을 경험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56.9%는 산부인과를 방문하지 않고 있었다. 사회에 만연한 산부인과에 대한 부정적 시각으로 인해, 생식기계 질병에 대해 본인 스스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는 이상 산부인과 방문을 꺼리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1]. 과거에 비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여성의

생식기계 질병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대다수의 미혼 여성들은 공식 의료기관, 보건소 등이 아닌 비공식 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얻고 있었고, 그렇게 얻은 정보마저 적극적인 관리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것에 그치고 있었다. 또한 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대 여성 산부인과 검진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여성에게서 비정상적 소견이 발견되었고 광범위한 생식기계 질병의 발생률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부터 자궁경부암 주사를 무료접종 대상에 넣는 국가예방접종사업(NIP) 확대 및 자궁경부암 검사를 제공하는 등 산부인과 방문 및 검진을 늘리려는 노력이 시도

주요어: 산부인과 방문의도, 인지, 낙관적 편견, 여대생

Corresponding author: Bae, Kyung-Eui

Department of Nursing, Dongseo University, 47 Jurye-ro, Sasang-gu, Busan 47011, Korea.
 Tel: +82-51-320-2632, Fax: +82-51-320-2721, E-mail: womnehealth@gdsu.dongseo.ac.kr

투고일: 2019년 7월 28일 / 심사완료일: 2019년 8월 17일 / 게재확정일: 2019년 8월 20일

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산부인과 질병에 대한 소극적 태도는 변하지 않음에 따라[1], 미혼여성의 산부인과 방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타 요인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따라 산부인과적 관리를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대생은 추후 생식기계 질병에 노출될 수 있는 잠재 집단이며 산부인과 국가 검진 대상으로써 산부인과 이용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집단으로, 여대생의 정기검진과 예방률을 높일 수 있다면 이로 인한 국가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보건사업의 발전에 따라 건강관리에 있어 개인의 태도가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데, 이에 있어 건강관리 대상자의 태도와, 자신의 행동 통제는 현대사회에서 건강 상태를 결정짓는 중요 요인으로 드러나고 있다. 계획된 행동이론을 바탕으로 한 미혼여성의 산부인과 방문의도를 조사한 논문 따르면 미혼여성에게 있어 산부인과 방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고, 산부인과 방문이라는 행동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방문의도가 높음을 확인하였다[2]. 그러므로 본 연구를 확장, 재검토하여 여대생의 방문의도에도 인지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지 밝히고자 한다.

또한 대상자의 산부인과 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상자의 건강행위에 대한 심리적 요인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중 낙관적 편견(optimistic bias)이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부정적인 사건을 겪을 가능성이 적다고 믿는 편향된 경향으로[3], 최근 여성 복지에 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여성의 건강행위에 대한 심리적 요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자궁경부암에 대한 낙관적 편견 연구에 따르면 한국 여대생들은 자궁경부암에 대해 보편적으로 높은 낙관적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4], 기존의 연구는 질병과 낙관적 편견의 관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산부인과 방문의도에 낙관적 편견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부재하였다. 그리하여 여대생의 낙관적 편견이 여성의 산부인과 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지와 낙관적 편견이 산부인과 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추후 여대생 생식기 관리와 산부인과 방문을 유도하는 캠페인과 관련된 교육의 자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인지와 낙관적 편견이 여대생의 산부인과 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때, 인지변인에는 태도와 지각된 행동통제가 포함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인지, 낙관적 편견, 산부인과 방문의도의 정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산부인과 방문의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인지, 낙관적 편견, 산부인과 방문의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산부인과 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만 25세 이하의 여대생의 태도, 지각된 행동통제, 낙관적 편견이 산부인과 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만 25세 이하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 필요한 표본의 수는 G*Power 3.1.9.4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효과크기 .50, 검정력 .80, 유의수준 .05을 유지하는 조건에서 최소 표본 수 128명이 산출되었다. 본 연구를 위해 편의 추출하여 135명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3. 연구도구

1) 인지

산부인과 방문에 대한 인지를 측정하기 위해 태도 요인과 지각된 행동통제 요인으로 구성된 민지원[2]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태도를 측정하는 문항은 “산부인과에 방문하여 검진 받는 것은” 으로 시작하는 문장에 대해 제시된 6개의 형용사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5점 Liket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α 는 .892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35였다. 지각된 행동통제를 측정하는 문항은 통제력 2문항, 자기효능감 2문항 총 4문항으로 구성된 5점 Liket 척도로 측정하였다. 도구의 개발 당시 Cronbach's α 는 .852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45였다.

2) 낙관적 편견

낙관적 편견은 긍정적인 일과 부정적인 사건에 있어 나에게 더 유리하게 발생한다는 편향된 지각을 말한다[5]. 자궁경부암에 대한 낙관적 편견을 ‘나보다 타인이 자궁경부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으로 정의하고, 구윤희와 노기영[6]이 유방암에 대한 낙관적 편견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자궁경부암으로 수정하여 5점 Liket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의 선행연구[6] 신뢰도 Cronbach’s α 는 .704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685였다

3) 산부인과 방문의도

산부인과 방문의도에 대해 Ajzen의 연구에서는 방문 의향, 방문을 위한 노력, 방문에 대한 계획을 통해 측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7]. 산부인과 방문의도 측정도구는 Min과 Cha [2]가 대한산부인과협회의 권고 사항에 근거하여 “1년에 한번 산부인과에 방문하는 행동”으로 정의하여 방문 의향, 방문을 위한 노력, 방문에 대한 계획으로 구성된 3문항으로 구성된 5점 Liket척도로 측정하였다[2].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α 는 .97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39였다.

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헬싱키 선언에 입각하여 연구대상자에게 연구목적과 비밀보장, 연구참여로 인해 어떠한 신체적, 정신적 위해가 없음을 설명하고, 대상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연구참여의 철회가 가능함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이해하며 자발적으로 이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자로 대학교에 재학 중인 25세 이하의 미혼여성 135명을 편의 추출하였다. 자료수집은 2019년 4월 8일부터 2019년 4월 16일까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동의한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전자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하고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대상자가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음과 수집된 자료는 연구 종료 즉시 파기될 것임에 대해 다시 한 번 고지하고 온라인 동의를 받았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할 것이다. 구체적인 자료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인지, 낙관적 편견, 산부인과 방문 의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산부인과 방문 의도의 차이는 t-test, ANOVA를 이용하였다.
- 대상자의 인지, 낙관적 편견, 산부인과 방문 의도 간에 상관관계는 Pearson 상관관계를 사용하였다.
- 산부인과 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22.84 ± 1.32 세로 22~23세가 135명 중 79명(58.6%)으로 가장 많았다. 음주 습관은 한다 107명(79.3%), 안한다 28명(20.7%)였다. 음주 횟수는 월 1~3회가 67명(49.6%)로 가장 많았다. 흡연 습관은 한다 12명(8.9%), 안한다 123명(91.1%)였다. 성 경험유무는 있다는 71명(52.6%), 없다는 64명(47.4%)였다. 71명 중 성 경험 시작 연령대는 20세 미만 이 10명(14.1%)였고, 20세 이상은 61명(85.9%)였다. 20세 미만 에 성 경험을 시작한 대상자는 초등학교 1명, 중학교 1명, 고등학교 8명이었다. 성 교육 횟수는 받지 않음이 2명(1.5%), 1~2회는 23명(17.0%), 3~4회는 40명(29.6%), 5회 이상은 70명(51.9%)였다.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유무는 했다 31명(23.0%), 안 했다 104명(77%)이었다. 생식기 질환 과거력은 있다는 49명(36.3%), 없다는 86명(63.7%)였다. 질환은 질염 43명(87.8%), 그 외는 6명(12.2%)이었다. 그중 방광염 2명(4.1%), 자궁내막 용종 1명(2.0%), 다낭성 난소증후군 2명(4.1%), 골반염 1명(2.0%)이었다(Table 1).

2. 인지, 낙관적 편견, 산부인과 방문 의도의 정도

연구대상자의 인지 정도는 평균 3.90 ± 0.62 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인지의 하위 요인 중, 태도 정도는 평균 4.01 ± 0.64 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고, 지각된 행동통제 정도는 평균 3.73 ± 0.83 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낙관적 편견 정도는 평균 3.44 ± 0.58 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산부인과 방문의도 정도는 평균 3.10 ± 1.06 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산부인과 방문 의도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산부인과 방문의도는 성

경험($t=3.09,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다른 변수에서는 차이가 없었다(Table 3).

4. 인지, 낙관적 편견, 산부인과 방문의도 간의 상관관계

연구대상자의 산부인과에 대한 방문의도는 인지($r=.422, p<.001$), 인지 변인 중 태도($r=.349, p<.001$)와 지각된 행동통제

($r=.378, p<.001$), 낙관적 편견($r=.419, p<.001$)은 강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대상자의 인지와 태도($r=.878, p<.001$), 지각된 행동통제($r=.831, p<.001$), 낙관적 편견($r=.385, p<.001$)도 강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대상자의 지각된 행동통제는 낙관적 편견($r=.285, p=.001$)과 강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Table 4).

5. 산부인과 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연구대상자의 산부인과 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에서 관련성을 보였던 변수인 성 경험을 포함하여 인지와 낙관적 편견을 영향 요인으로 모형화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한 결과 3가지 모델이 도출되었다.

단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기 전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가 0.846~0.991으로 0.1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VIF도 1.009~1.183으로 10 미만이었다. 또한, Durbin-Watson 값이 1.895로 등분산을 만족하였고 정규성도 확인하였다($F=12.361, p=.001$). 그 결과 인지($\beta=.326, p<.001$), 낙관적 편견($\beta=.277, p=.001$), 성 경험($\beta=.255, p=.001$) 순으로 산부인과 방문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 변수들은 산부인과 방문의도를 30.4% 설명하였다(Table 5).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35)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Age (year)	20~21	23 (17.0)	
	22~23	79 (58.5)	
	24~25	33 (24.4)	
		22.84±1.32	
Drinking habit	Yes	107 (79.3)	
	No	28 (20.7)	
	times /month	None	28 (20.7)
		1~3	67 (49.6)
>4		40 (29.7)	
Smoking habit	Yes	12 (8.9)	
	No	123 (91.1)	
	times /month	None	123 (91.1)
		1~3	5 (3.7)
>4		7 (5.2)	
Sexual experience	Yes	71 (52.6)	
	No	64 (47.4)	
The beginning age of sex (n=71)	<20	10 (14.1)	
	≥20	61 (85.9)	
Sexual education	None	2 (1.5)	
	1~2	23 (17.0)	
	3~4	40 (29.6)	
	≥5	70 (51.9)	
HPV vaccination	Yes	31 (23.0)	
	No	104 (77.0)	
History of genital disease type	Yes	49 (36.3)	
	No	86 (63.7)	
disease type (n=49)	Vaginitis	43 (87.8)	
	Etc	6 (12.1)	

Table 2. Cognition, Optimistic bias, Intention of Behavior (N=135)

Variables	M±SD	Min	Max	Range
Cognition	3.90±0.62	1.60	5.00	1~5
Attitude	4.01±0.64	1.67	5.00	1~5
Self control	3.73±0.83	1.50	5.00	1~5
Optimistic bias	3.44±0.58	1.00	5.00	1~5
Intention of behavior	3.10±1.06	1.00	5.00	1~5

논 의

본 연구는 미혼의 25세 이하 여대생의 산부인과 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성경험, 인지, 낙관적 편견이 산부인과 방문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밝혀졌다. 여대생의 일반적인 생활 습관에서는 음주습관이 흡연습관보다 많았고, 참여자의 52.6%가 성경험이 있었고, 98.5%가 성교육 경험이 있었다. 최근 시행된 만13세 여아 대상 HPV 무료예방접종과 확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대상자의 HPV 예방접종은 23.0%에 불과하였다. 성경험과 무관하게 생식기 질환은 36.3%였으며, 질환의 종류는 대부분 질

Table 3. Difference of Intention of Behavior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35)

Characteristics	Categories	Intention of behavior	
		M±SD	t or F (p)
Age (year)	20~21	2.71±0.75	1.86 (0.15)
	22~23	3.16±1.10	
	24~25	3.20±1.13	
Drinking habit	Yes	3.12±1.06	0.40 (0.69)
	No	3.02±1.09	
Smoking habit	Yes	3.47±1.19	1.29 (0.20)
	No	3.06±1.05	
Sexual experience	Yes	3.36±1.03	3.09 (< .001)
	No	2.80±1.03	
The beginning age of sex (n=71)	< 20	3.83±0.24	0.66 (0.51)
	≥ 20	3.34±1.04	
Sexual education	None	2.50±0.17	0.66 (0.58)
	1~2	3.33±0.93	
	3~4	3.09±0.90	
	≥ 5	3.04±1.20	
HPV vaccination	Yes	3.37±1.02	1.62 (0.11)
	No	3.02±1.07	
History of genital disease type	Yes	3.27±1.11	1.40 (0.16)
	No	3.00±1.03	
disease type (n=49)	Vaginitis	3.29±1.02	0.33 (0.75)
	Etc	3.06±1.72	

Table 4. Correlation of Cognitive and Decadent Prejudices and Behavior

(N=135)

Variables	Attitude	Self control	Optimistic bias	Intention of behavior
	r (p)	r (p)	r (p)	r (p)
Cognition	.878 (< .001)	.831 (< .001)	.385 (< .001)	.422 (< .001)
Attitude	1	.463 (< .001)	.368 (< .001)	.349 (< .001)
Self control		1	.285 (.001)	.378 (< .001)
Optimistic bias			1	.419 (< .001)

Table 5. Factors Influencing Intention to Visit Obstrics-Gynecology

Variables	Model1		Model2		Model3	
	β	t (p)	β	t (p)	β	t (p)
Sexual experience					.255	3.516 (.001)
Cognition	.422	5.365 (< .001)	.306	3.760 (< .001)	.326	4.159 (< .001)
Optimistic bias			.301	3.694 (< .001)	.277	3.533 (.001)
R ²	.178		.255		.319	
Adjusted R ²	.172		.244		.304	
F (p)	28.782 (< .001)		13.649 (< .001)		12.361 (.001)	

염(87.8%)이었다.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생식건강 관련 생활습관을 연구한 기존의 연구에서[8]의 결과와 동일하였다.

따라서 미혼여성의 생식건강관리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비해 확대되고 있으나 성활동 시작 연령은 점점 낮아지고 관리를 받지 않고 지내는 미혼기가 점점 길어지면서 여성의 생식건강 수준에 좀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여성의 생식건강에 대한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는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치료 및 관리를 받는 행위가 가장 빠른 해결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계획된 행동이론에 근거해서 살펴본 산부인과 방문에 대한 인지와 건강에 대한 낙관적 편견은 산부인과 방문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9]. 지각된 행동통제가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Ajzen (1985)의 계획된 행동이론은 건강행위에 또한 영향을 미치며[2], 행동을 설명하는 데는 태도와 지각된 행동통제 변인의 설명력이 크다고 하였다[5]. 특히 선행연구에서 인지변인에 포함한 태도는 산부인과 방문의도와 긍정적인 상관관계[2]를 보였으며, 태도는 행동결과에 대한 신념과 기대하는 행동결과에 대한 평가를 포괄한다[7]고 하여 태도가 행동변인의 중요한 요소임을 지지하고 있다.

산부인과 방문에 대한 인지에 있어서 태도는 높은 편이나, 자기 조절능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5세의 대학생들은 수차례의 성교육을 통해 태도는 잘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되나, 스스로 자기를 통제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자기 조절 능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자신의 일정 행동에 대한 부정적 결과에 대해 타인에 비해 본인은 덜 해를 입을 것이라는 인식인 낙관적 편견은 질병에 대한 건강위험 항목과 관련성이 있다고 하여 환자들의 경우 자기보다 훨씬 상태가 나쁜 환자들과 자신을 하향 비교하는 경향을 보인다[10]고 하였고, 이는 하향 비교가 자신의 상태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결과는 일반적으로 질병이나 본인의 상태에 대해 낙관적인 편견을 보인다[11]는 연구결과는 낙관적 편견이 건강증진행위와 관련성이 높음[12]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유방암에 대한 낙관적 편견을 본 연구[6]에서는 평균이 3.61으로 본 연구보다 높았으며, 성인의 건강위기에 대한 낙관적 편견을 본 연구[13]에서는 평균이 2.69로 본 연구결과보다는 낮았다. 이는 질병이 중증도나 예후에 따라 낙관적 편견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산부인과 방문의도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평균 값이 3.10[9], 3.06[2]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고, 여대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4]에서는 평균이 3.95로 본 연구 결과 보다 높았다. 기혼여성과 미혼여성 집단의 산부인과 방문의도의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미혼 여대생의 산부인과 방문에

대한 여성에 대한 편견이 아직 남아 있으며, 자신의 건강에 대한 낙관적 편견이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분석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인지적 접근에서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호의적이다.’, ‘바람직하다.’, ‘현명하다.’, ‘유익하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여성일수록 비교적 높은 방문의도를 보임을 파악하였다. 즉, 산부인과에서 받는 검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수록 방문의도에 강한 양적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해석된다. 그리고 산부인과에 방문할 것이라는 선택이 오로지 본인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할수록,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다고 생각할수록, 혹은 자신이 산부인과를 방문하는 일이 쉬운 일이라고 생각할수록 산부인과 방문에 대한 연관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확장된 계획된 행동이론을 건강행동의 파악에 사용한 다양한 선행연구[14-16]에서 입증된 것과 어느 정도 유사한 결과로, 지각된 행동통제는 여성의 건강행동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낙관적 편견을 통한 접근에서는 자궁경부암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수록, 자신이 알고 있는 같은 조건을 가진 주위 사람들이 자궁경부암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수록, 혹은 언제나 자궁경부암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거나 자궁경부암 조기검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여성일수록 비교적 높은 방문의도를 보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즉, 산과적 질병에 대해 낙관적으로 생각할수록 방문의도에 양적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해석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미래에 부정적인 사건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날 가능성은 높게 평가하지만, 긍정적인 사건이 자신에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낙관적 편견성에 대한 연구[3,10]와 낙관적 편견은 희망을 말하는데 곧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할 개연성이 적다고 편향되게 지각하도록 함으로써 판단의 오류를 범하게 된다[17]는 결과는 낙관적 편견이 건강증진행위를 실천하는데 영향력을 미치며, 산부인과 방문의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뒷받침 한다. 건강 신념 모델(health belief model)에 근거한 연구[18]에서는 특정 질환에 이환될 가능성에 대한 위기 인식이 그 질환을 예방하는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만약에 개인이 자신은 건강에 관련된 위험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각한다면 자연스럽게 자신을 보호하는 예방적 활동을 덜 수행하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건강과 관련된 행위에서 개인이 위기에 대해 지각하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데 중요한 행동 근거가 된다.

결론 및 제언

현대사회의 발전에 따라 병원으로의 접근성은 높아진 반면, 산부인과와 경우 사회의 부정적 시각으로 인해 방문을 꺼리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는 본 연구를 통해 여성들의 산부인과 방문을 격려하고자 한다. 사람들의 건강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건강행동에 대한 변수가 무엇인지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산부인과 방문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확히 드러내고자 인지와 낙관적 편견을 고려하여 여성들의 산부인과 방문의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개인의 건강행동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는 요인인 예방접종여부, 나이, 흡연유무, 흡연횟수, 음주유무, 음주횟수, 생식기 질환 과거력, 성 교육 횟수, 성 경험 유무, 성 경험 시작 연령대를 일반적 특성으로 선정하여, 각각의 요인과 산부인과 방문의도의 차이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나이가 산부인과 방문에 대한 연관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연령대가 건강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건강 행동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연령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었다. 또한 성교육 및 성경험을 통해 성에 대한 인식의 증가를 꾀더라도 이것이 산부인과 방문의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성에 대한 주관적 경험은 산부인과 방문과 연관성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인지적 접근에서는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호의적이다’, ‘바람직하다’, ‘현명하다’, ‘유익하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여성일수록 비교적 높은 방문의도를 보임을 파악하였다. 즉, 산부인과에서 받는 검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수록 방문의도에 강한 양적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해석된다. 그리고 산부인과에 방문할 것이라는 선택이 오로지 본인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할수록,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다고 생각할수록, 혹은 자신이 산부인과를 방문하는 일이 쉬운 일이라고 생각할수록 산부인과 방문에 대한 연관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로 해석된다. 이는 확장된 계획된 행동 이론을 건강행동의 파악에 사용한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입증된 것과 어느 정도 유사한 결과로, 지각된 행동통제는 여성의 건강행동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낙관적 편견을 통한 접근에서는 자궁경부암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수록, 자신이 알고 있는 같은 조건을 가진 주위 사람들이 자궁경부암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수록, 혹은 언제나 자궁경부암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거나 자궁경부암 조기검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여성

일수록 비교적 높은 방문의도를 보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즉, 산과적 질병에 대해 낙관적으로 생각할수록 방문의도에 양적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해석된다.

다만, 본 연구는 연구대상의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한계를 가진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25세 이하의 여대생 집단으로, 연령 및 학력에 제한점을 가진다. 학력이 산부인과 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파악하지 못했으나 대학생이라는 집단의 특성 및 교육 정도에 있어 일정 수준의 차이를 가지고 있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여성의 산부인과 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으로 일반화 하는데 한계를 가진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상자 표집의 크기를 확대하는 절충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여성의 성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에 따라, 익명으로 진행된 설문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실제 생각과 설문지의 정답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 대상자 설문조사 시 익명성 보호에 대한 필요가 강조된다. 더불어, 연구의 확대를 위해 산부인과로의 접근성 등 대상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의 적용을 고려해 볼 것을 제안하는 바다.

마지막으로, 인지, 낙관적 편견과 산부인과 방문의도와와의 연관성을 조사해봤을 때, 많은 여성들이 산부인과를 방문하는 비율이 저조하다는 선행연구에 비해, 여대생이라는 집단의 경우 산부인과 방문에 긍정적인 면모를 보이는 부분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현대 사회가 과거의 여성인식에 있어 변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앞으로의 여성 교육 및 산부인과에 대한 인식에 있어 큰 전환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격려할 수 있도록 여성 관련 정책부서, 의료기관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활발한 움직임을 기대한다.

REFERENCES

1. Lee SR. Study on the measures to support the management of pregnant health before pregnant women in the childhood.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5. KiHASA, 211-214.
2. Min JW, Cha HW. The effect of fear and social norm on unmarried womans intention of visiting gynecology hospital application of extended theory of planned behavior and interpersonal communication.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2017;61(1):217-250
3. Weistein ND. Why it won't happen to me: Perceptions of risk factors and susceptibility. Health Psychology, Health Psychol. 1984;3(5):431-457.
4. Cho SY.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ervical cancer preventive behavioral intentions and optimistic bias among korean female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Studies. 2018;26(3):101-124.
<https://doi.org/10.23875/kca.26.3.5>
5. Sohn Y, Lee B. An efficacy of social cognitive behavior model based 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 meta-analytic review.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2012;56(6):127-161.
 6. Ku Y, Noh GY. A study of the effects of self-efficacy and optimistic bias on breast cancer screening intention-focusing on the health belief model (HBM). *Ewha Journal of Social Sciences*. 2018;34(2):73-109
 7. Ajzen I.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self efficacy, locus of control, and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002;32(4):665-683.
<https://doi.org/10.1111/j.1559-1816.2002.tb00236.x>
 8. Lee SO. Effect of sex knowledge, intention to visit obstetrics-gynecology, awareness of visit of female college students on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behavio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2019;23(2):84-92.
<https://doi.org/10.21896/jksmch.2019.23.2.84>
 9. Ajzen I. From intention to actions: A theory of planned behavior. In J. Kuhl, & J. Beckman (Eds.), *Action control: From cognition to behavior*. New York: Springer-Verlag; 1985. p. 11-39.
 10. Jeff K, Charles EI Jr, George S, Susan GM. Optimistic bias in adolescents with hemophilia. *Pediatric Research*. 1987;21:176.
<https://doi.org/10.1203/00006450-198704010-00057>
 11. Jung EC, Jin CH. Breast and cervical cancer communication channels and screening intention. *Korean Communication Association*. 2011;19(20):139-162.
 12. Kim BC, Choi YH. Cultural difference study on optimistic bias of AIDS: Comparison between Korea and Kenya. *Korean Society for Advertising Education*. 2006;0:139-152.
 13. Park SH, Lee SH, Ham EM. The relationship between optimistic bias about health crisis and health behavior.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08;38(3):403-409.
 14. Weistein ND. Unrealistic optimism about future life ev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80;39(5):806-820.
 15. Weistein ND. Unrealistic optimism about susceptibility to health problems: Conclusions from a community-wide sample.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1987;10(5):481-500.
<https://doi.org/10.1007/BF00846146>
 16. Alicke MD, Klotz ML, Breitenbecher DL, Yurak TJ, Vredenburg DS. Personal contact, individuation, and the better-than-average e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95; 68(5):804-825. <https://doi.org/10.1037/0022-3514.68.5.804>
 17. Cha DP. Understanding binge-drinking: a test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2005;49(3):346-372.
 18. Han MJ. Theoretical consideration of the action of the receptor's optimistic bias. *Media & Society*. 1998;5-28.